

조손가정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효과성 연구

- 조모를 중심으로 -

김 흥 미(연세대학교 가양4 종합사회복지관), 강 영 속(군산대학교)

1. 연구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조손가정 조모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부담을 경감하고, 내재된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이들이 집단미술심리치료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체험과 자기통찰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환경에 있는 노인들끼리의 자조모임을 통한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대인관계증진에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앞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들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미술치료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좌절에 빠져있는 조부모가 긍정적으로 감정표현을 하도록 돕고,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단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진행기간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7명의 조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상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둘째, 불안, 우울을 완화시킨다. 셋째,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진다. 넷째,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미술집단심리치료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목표를 수행하기 진행된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1> 프로그램단계 및 회기별 주제와 활동목적 및 내용

단계	회기	주제	목적 및 내용	활동	준비물
초기 탐색 단계	1	오리엔테이션 별칭 짓기, K-HTP,	집단규칙, 서약식	라포형성, 사전검사	도화지, A4용지,연필, 지우개, 싸인펜, 크레파스, 색연필, 이름표,
	2	음악 듣고 그리기	관계형성	친밀감 형성	도화지, 전지,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먹물, 붓, 파스텔, 음악CD
	3	습자지 찢기	부정적 감정표출	스트레스 해소	여러 색의 습자지, 스카치테이프
실행 단계	4	밀가루로 만들기	감정순화	정서적 이완	밀가루, 식용색소, 식용유, 믹서, 오이, 당근, 플라스틱컵, 거즈, 숟갈, 다식판, 양재기
	5	악기 만들기	즐거움 감정 체험	악기연주 및 노래, 율동	여러 종류의 음료수 빈통, 곡류, 수수깡, 시트지, 스티커
	6	플라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존중	자기 이해 및 자기 이미지 정립	형겅, 본드, 도화지
종결 단계	7	협동화	협동, 타인배려, 존중	자아조절, 구성원의 양보심과 협동심증진	광목, 여러종류의 형겅, 실과 바늘, 그리기 재료
	8	액자 만들기 사후검사, 다과회	집단경험을 통해 얻은 유익한 점 함께 나누기	경험 나누기	사진, 액자판, 타일, A4용지, 연필, 크레파스, 지우개, 색연필, 싸인펜

3. 주요 결과

프로그램의 평가는 질적평가과 양적평가로 진행되었다. 먼저 질적평가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보조진행자의 개별평가와, 회기별 평가 그리고 K-HTP기법 평가하였다. 양적평가는 spss.1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처리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수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의 부호와 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

1) 질적평가

(1) 개별성원 평가



개별성원의 평가는 작업태도, 표현력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름	초기	후기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손이 빨라 늦게 와도 제일 먼저 그림을 완성하였다. - 표현력: 색채가 밝고 집단원들 중에서 표현력이 가장 좋다. - 상호작용: 농담도 하며 집단의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미리 오늘 무엇을 만들까?하고 집에서부터 생각해 와서 다른 사람이 하나 만들 때 두개를 완성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 표현력: 솜씨가 좋아 짧은 시간에 습자지로 한복을 만들고, 천으로 상보를 만드는 등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 상호작용: 자기개방도 많이 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았다.
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늦게 와서 소극적으로 작업하였다. - 표현력: 사람의 하체를 생략하여 화면 하단에 자신이 없는 그림을 표현하였다. - 상호작용: 집단원과의 의사소통이 별로 없이 조용히 작업만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작업에 몰입하여 진지하게 만들었다. - 표현력: 모자, 재기, 다식 등을 손끝이 야물게 빠르면서도 쉽게 만들었다. - 상호작용: 자기작업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만, 공동화 작업에서 오랜 세월동안 남과 벽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산 것을 볼 수 있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 얼굴에 드러난 채 그림을 그렸다. - 표현력: 표현이 다소 거칠며 신경질적인 선으로 그림을 그렸다. - 상호작용: 집단원들과 거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개방을 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것에 시기질투를 하며 그들을 따라 하려고 하나 잘 안되자 교회 일로 빠지는 일이 있었다. - 표현력: 본인의 생각만큼 표현이 따라 주지 못하고 바느질이나 만드는 것이 정교함이 부족하다. - 상호작용: 가끔은 정신장애가 있는 딸 때문에 힘듦을 말하며 자기개방을 조금 하였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집이 멀어 가장 늦게 왔으며 꼼꼼한 성격으로 작품완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다. - 표현력: 자신을 손자녀와 동일시하여 본인을 생략하여 표현하였다. - 상호작용: 본인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집이 멀어도 오는 시간이 빨라졌으며, 다른 사람들이 완성 후 기다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본인 작업완성에 몰두하였다. - 표현력: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을 더 잘하며, 특히 악기 만들 때는 음표수비에 시트지를 정확하게 재단하여 어긋남이 없게끔 만들어 완벽함을 보여 주었다. - 상호작용: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다.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프로그램실에 가장 일찍 와서 기다렸으며, 늦게 오는 사람들을 탓하였다. - 표현력: 감정표현을 솔직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나 표현력은 다소 거칠다. - 상호작용: 남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시작 전에 오늘 하는 작업에 대해 물어보는 등 매체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재료에 욕심이 많아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미리 챙겨 작업하였다. - 표현력: 욕심에 비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한 작업에 성취감을 가졌다. - 상호작용: 자기의사표현이 강한 편이며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가끔 말장구를 쳐 주었다.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어 지팡이를 잡고 다니며 그림 그리는 것을 다소 힘들어하였다. - 표현력: 구도가 단순하며, 위축되어 있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 상호작용: 자존감이 낮아 부담감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출석률이 100%로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 표현력: 손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로 송편을 능숙하게 만들었으며 악기, 형광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을 곧잘 만들었다. - 상호작용: 초기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존중하여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를 하였다.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작업에 임했다. - 표현력: 화면 정중앙에 그림을 그리며, 필압이 활달하다. - 상호작용: 자기개방을 많이 하며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태도: 바빠서 조금만 작업하고 빨리 가야한다고 하였으나, 작업을 하면서 욕심이 생겨 결국은 가장 나중까지 열심히 참여하였다. - 표현력: 일정시대에 여학교에서 바느질 배워 형광으로 만드는 것을 잘 하였다. - 상호작용: 집단원들과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집단을 리드하지만, 자기주장이 강하다.

(2) 집단미술치료 회기별 평가



회기	전체 집단원 회기별 평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들이 손자녀를 키우며 겪는 동질적인 집단이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손자녀가 한 학년에 있는 것을 발견한 조모들은 마치 친구를 만난 것같이 반가워하였으며, 서로에게 친숙함을 느끼며 같은 처지를 서로 동조해 주는 등 라포 형성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매체에 대한 친숙함을 갖기 위하여 음악을 듣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였는데, 우연히도 조모들은 손자녀들의 앞길에 해가 짙게 비추고, 장미빛 같은 길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와 꽃이 등장하여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더욱 높아졌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화려한 색의 습자지를 마음껏 찢을 수 있게끔 준비하였으나, 구성원들은 아까운 습자지를 찢지 못하고, 한복을 만들던 옛날을 떠올리며 한복, 땀, 제기 등을 만들어 작업에 몰입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으며, 방과 같은 아늑한 프로그램실에 둘러 앉아 과거를 회상하며 습자지를 같이 찢으면서 구성원들의 친밀감이 높아져 집단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 우울완화 및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 중기에 접어들어 친숙해진 구성원들이 함께 밀가루를 반죽하고 식용색소를 첨가해 과거 다식, 송편 만들던 때를 떠올리며 공통적인 이야기꽃을 피웠다. 만들면서 다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만든 송편을 찢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그림 그리는 것 보다는 익숙한 송편이나 다식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숨겨진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트지를 오려 붙이는 작업을 통하여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을 높이고, 소리 나는 악기를 만들어 장단 맞추어 함께 “널니리아”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면서 대인간의 상호교류가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종 곡식들과 형형색색의 시트지가 주는 화려함과 실용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더 잘 만들기 위해 경쟁심까지 보이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집단이 생산적인 단계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종류의 형광을 보자, 이 형광들을 어떻게 모아왔냐며 감탄하고, 어떤 천으로 할지 고르고, 서로 좋은 것을 갖기 위해 경쟁하였다. 손이 재빠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스카프, 상보 등을 만들어 몸에 걸치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어버리고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시 과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화 작업으로 처음에는 자기 자리에서만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꺼리면서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곧 자리를 양보하며 서로의 그림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서로의 그림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그림과 유사한 것을 파스텔로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였으며, 작품의 제목도 “평화”라고 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회기에 그려던 K-HTTP그림을 다시 그려 봄으로서 변화된 과정을 보고, 그동안 조모들이 치료시간에 한 작업사진들을 인화하여 액자를 꾸며서 집으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종결로 갈수록 구성원들은 자기 개방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상호교류를 통한 의사소통도 활발해져 대인관계가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K-HTP¹⁾에서의 대상자 변화 평가



시기	박OO: K-HTP	특징
초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사람이 서 있다. 사용된 상징: 논 구도가 산만하며 집의 형태가 작고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있으며, 창문과 문이 생략된 점으로 보아 위축된 성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나무는 좌측에 작게 그렸으며, 사람과 발 사이에 철도 길로 구분되어 있고, 사람의 형태는 머리를 제외하고는 나무막대기처럼 그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색채는 갈색을 많이 사용했으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다.</p>
후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서 있다. 사용된 상징: 개 구도가 중심으로 모아지고 사람의 형태가 더 완전해 보인다. 집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규모가 커졌으며, 창문과 문이 생겨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색채는 갈색조에서 분홍색을 많이 사용하여 분위기가 밝아졌다.</p>



시기	성OO: K-HTP	특징
초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돌에 맞아 울고 있다. 사용된 상징: 돌뿌리 구도가 좌측에 있는 집은 허물어질 것 같고 창문이 작고, 문이 없어,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을 그렸다. 사람은 돌뿌리에 한쪽 눈을 다쳐 우는 사람을 그리고, 나무는 집과 사람 사이에 작게 그려 위축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도 부족해 보인다. 색채는 사람만 일부 색칠하고 사용한 색상 수가 주황, 파랑, 초록으로 제한되어 있다.</p>
후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서있음 사용된 상징: 꽃 규모가 커졌으며, 창문과 문이 생겼고, 정중앙에 위치시켰다. 사람은 눈, 코, 입을 생략한 채 그렸고, 집 옆 좌측에 있는 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나무줄기가 튼튼해 진점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색채는 집, 사람, 나무가 색칠되어 있고, 하늘과 땅이 밝은 톤으로 칠해져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p>



1) Burns(1979)는 그림에 역동성을 부여하도록 동적 집-사람-나무 K-HTP(Kinetic-Drawing House, Tree, Person)검사기법을 발전시켰다. 이 검사는 한 장의 종이 위에 집, 사람, 나무를 모두 그리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은 가정생활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나무는 생활과 자기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실현적인 자아상을, 사람은 신체적 자아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서와 자아에 대한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나 대물관계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므로 진단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시기	연OO:K-HTP	특징
초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사람과 집 행위: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사용된 상징: 구도는 화면의 하단에 치우쳐져 집, 사람, 나무를 그렸다. 집은 우측에 작게 그렸으며, 사람은 아버지와 본인으로 상체만 그리고 하체는 생략하였다. 나무는 화분에 심은 꽃으로 부러질 것 같이 약하게 그려 위축된 면을 볼 수 있다. 색채사용에서 집은 파랑색으로 윤곽만 그리고, 사람은 연두색으로 얼굴을 둥근 표현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준다.</p>
후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친구 집에 갔다가 오는 길 사용된 상징: 구도에서 집의 규모가 커지고 정중앙에 위치하고, 창문과 문을 그려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집 앞에 전신을 다 그린 사람으로 나타나 긴장, 불안이 감소하고 자아가 튼튼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색채는 연두색 일색에서 황토색, 파랑색, 초록색, 살색 등 등 많은 색조를 사용하였다.</p>

시기	이OO: K-HTP	특징
초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서있음 사용된 상징: 구도는 집과 나무, 사람의 표현이 경직되고 직선적으로 표현되어 다소 불안해 보이며 긴장되게 느껴진다. 색채사용은 윤곽선만 그리고 색칠은 하지 않았다.</p>
후기		<p>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양쪽에 대칭으로 서있음 사용된 상징: 꽃 구도는 집을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사람과 나무를 대칭적으로 그리고, 집, 나무, 사람의 표현이 풍성해졌다. 색채사용은 나무와 사람을 색으로 채우고 빨강색으로 꽃을 칠해 이전보다 색감이 풍성해졌다.</p>

시기	차OO: K-HTP	특징
초기		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사람이 생략 사용된 상징: 개와 개집 구도에서 집은 크지만 출입문이 없어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보이며, 사람은 생략되고 사람 대신 집을 지키는 강아지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색채사용은 전반적인 색채가 흐릿한 색상을 사용했으며, 필체도 힘이 없어 보인다.
후기		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닭과 병아리에게 모이주고 있다. 사용된 상징: 닭, 병아리, 해, 새 구도는 문과 창문이 커지고 집의 규모가 크고 정교해졌다. 사람은 본인과 손자가 닭과 병아리들에게 모이를 주는 모습을 그렸다. 나무는 화면 양쪽으로 더 오래된 나무를 그려 구도가 치밀해졌다. 색채사용은 색상 사용이 밝아졌으며, 사용하는 색상수가 많아졌다.

시기	최OO: K-HTP	특징
초기		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서있음 사용된 상징: 소나무 구도는 화면 하단에 본인 대신 손자와 나무를 배치하였으며, 집은 지붕에 나타난 선 등으로 미루어 강박적인 면이 보이며, 나무의 줄기는 수액이 흐를 수 없을 만큼 가늘다. 수관은 뻗어나가지 못하거나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사람은 우측 상단에 벌거벗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일상생활에서 많이 위축되고 기댈 지지체계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색채표현은 윤곽선만을 크레파스로 표현하였다.
후기		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사람생략 사용된 상징: 꽃 구도는 가운데 기저선을 그려 화면을 이분화하고, 화면 가운데 꽃으로 본인을 그려 전반적으로 구도가 짜임새 있어졌다. 또한 좌측에 나무를 그리고, 우측에 창문이 있는 기와집을 그려 집과 연결된 길을 그려 안정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호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색채 표현이 파스텔톤으로 색을 칠해 그림이 화사해졌다.

시기	함OO: K-HTP	특징
초기		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서있음 사용된 상징: 우물 구도에서 사람의 형태가 눈, 코, 입이 생략되어 표현되었으며, 사람, 집, 나무가 일렬로 표현되었다. 거친 필압과 격자문의 등장에서 강박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색채 사용은 노랑색, 연두색으로 등성등성 칠했다.
후기		그림을 그린 순서: 집→나무→사람 그림 간의 부착여부: 없음 행위: 집으로 가는 길 사용된 상징: 항아리 구도는 사람의 형태가 정면에서 측면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집은 정교해지고, 집과 나무의 간격이 이전보다 떨어졌으며, 구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보인다. 색채를 사용하는 색상 수가 많아졌으며, 등성등성 칠하던 것에서 백백하게 칠하게 되었다.

2) 양적평가

수집된 5명²⁾의 자료를 spss.1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처리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점수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의 부호와 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조가원(2002)이 수정 보완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중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항 8개를 제외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7991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71세로 경제상태는 “상, 중, 하” 중 “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100%였으며 참여자 전부가 수급대상자였다. 양육하고 있는 손자의 수는 1명이 80%,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였다. 돌보고 있는 손자녀의 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모두 남아라고 응답한 경우가 60%였고, 모두 여아라고 응답한 경우가 40%였다.

다음으로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집단은 집단미술치료를 받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실험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보았다. 사전집단의 평균값은 2.28이고, 사후검사의 평균은 2.23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통계기법인 Wilcoxon

2)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총 7명으로 탈락자 없이 프로그램이 종결되었으나 2명이 사전평가를 하지 않아 최종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부호검증을 실시한 결과 Positive Ranks의 사례수는 4명으로, 평균 순위는 2.50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Negative Ranks 1명으로, 평균 순위 5.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부모가정의 조모들에게 집단미술치료의 실시가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불안·우울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는 조부모가정의 조모들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인 분석에서는 조모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질적인 분석에서는 그림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미술치료는 조부모가정의 조모들의 불안·우울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림에서의 변화와 자기보고식의 설문에서 조모들의 참여도, 만족도, 성취도에서 효과가 있었다.

치료과정에서 집단원 7명 모두가 손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수급자란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어 쉽게 라포를 형성하여 11, 12월이란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8회기까지 한 명도 탈락 없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양적인 평가에서는 조모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응답으로 모두가 좋게 응답하여 결과 값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질적 평가에서는 8회기 만에 60, 70세가 넘은 노인들의 사전보다 사후 K-HTP그림에서 집, 나무, 사람의 크기, 위치, 긴밀, 관계, 색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 등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명되었다.

본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그림 그리는 것 보다 노인들의 정서에 친숙한 매체인 습자지, 형걸 등을 사용하여 회상 위주의 작업을 함으로써 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였고, 진행자가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두 명으로 집단의 역동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가중과 이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겪고 있는 조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불안, 우울을 다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음악, 동작 등을 가미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으며, 향후에 조모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다.